

개츠비의 사랑과 관련 짓는 프로이트의 '행복'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요인은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또는 행복해지기도 한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은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중요시한다. 부유한 도시인 재즈 에이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부를 누리는 척"을 하는 제이 개츠비와 그가 젊었을 때 사랑했고 동경해왔던 부유하고 젊은 여자 데이지 뷰캐넌을 쫓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즉, 이 소설은 개츠비의 욕망의 대상인 데이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저자는 앞서 말했듯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이 그를 그의 엄청난 부를 얻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개츠비가 여러 위대한 파티 등을 열어 데이지를 본인에게 오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한 구체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 개츠비의 노력과 그가 투자하는 사랑은 어떤 시각으로 분석되어야 할지 나는 고민해 보았다. 그러던 도중 프로이트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것이 떠올랐다. 프로이트가 지은 책들 중 하나인 "문명 속의 불만"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열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된 다양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비교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측면과, 해결할 수 없는 욕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 프로이트는 삶의 목적과 의도는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순전히 쾌락 원칙에 따라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행복은 쾌감을 높이거나 불쾌감을 줄이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하였다. 인간은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코 성취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 쾌락과 욕망은 개츠비의 사랑과도 관련지을 수 있으며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충분히 분석해볼 만하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통해,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행복과 욕망을 분석해볼 것이다.

우선 "위대한 개츠비" 속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인공 개츠비는 거의 5년 전에 루이빌에서 닉의 사촌 데이지를 알았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나중에 톰과 결혼해버린다. 어느 날, 개츠비의 요청에 따라 닉은 데이지를 개츠비가 만날 수 있는 집으로 초대한다. 며칠 후 차를 마시고 있었을 때쯤에, 데이지는 거의 5년 만에 개츠비를 보고 엄청 놀랐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닉은 두 사람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30분 동안 밖으로 나간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친해진 것처럼 보였고, 개츠비는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이었고 반면에 데이지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그들은 개츠비의 거대한 집으로 이동하고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의 부유로 가득 찬 방들을 자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톰은 데이지와 개츠비의 관계를 알게 된다. 톰은 개츠비가 밀매업자라고 의심하고, 파티가 끝난 후 닉에게 실망을 표하는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에게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개츠비의 거대한 파티는 그 후 중단되고 데이지는 오후에 개츠비의 집으로 이동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더운 날 닉과 개츠비는 뷰캐넌의 집에 점심을 먹으러 도착했는데,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고백했다. 어느 날, 화가 난 톰은 데이지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 개츠비와 대면한다. 데이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개츠비는 데이지와 그가 항상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싸움이 심화되고 데이지가 남편을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톰은 개츠비가 시카고에 있는 약국에서 불법 술을 판매하여 돈을 벌었다는 그의 사건을 밝힌다. 개츠비는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만 데이지는 결의를 잃었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개츠비와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에 타서 데이지가 그 차를 운전하고, 함께 떠나버린다. 길에서 그들은 남편과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톰이라고 생각하는 개츠비의 지나가는 차를 향해 거리로 뛰어든 머틀을 치고 죽였다. 겁에 질린 데이지는 계속 운전하지만 목격자들에게 차가 보였다. 다음날 밤, 개츠비는 그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닉에게 말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왔으며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루이스빌에서 데이지를 만났지만 당시에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난했다고 하였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불법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말을 하였다. 마지못해 데이지는 연락이 안 되고, 개츠비는 총에 쏘여 죽게 된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바로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과 욕망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헌신하는 행동을 보며 개츠비는 데이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나의 생각은 개츠비는 데이지를 사랑하기보다 데이지를 상징하는 부를 더 많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기에 비난을 받을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개츠비는 사랑, 부, 그리고 계급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작가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강조된 주제 중 하나는 두 주인공인 개츠비와 데이지의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관계였다. 그는 데이지를 향해 강한 집착의 마음을 품었지만, 개츠비의 강한 집착과 감정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나에게는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왔다. 우선 가장 이 소설에서 강조가 많이 되는 "부"는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집착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개츠비는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부자가 전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꾸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종종 보였다. 소설을 읽다 보니 개츠비가 데이지를 주변의 값비싸고 화려한 물건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많이 보이기도 하였다. 개츠비가 데이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반했고 사랑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풍요로움의 선물이기도 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돈과 부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작 상대방이 가진 부, 그리고 풍요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은 그녀의 부유한 삶의 동경심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더 덧붙여 말하자면, 개츠비는 그가 노력해서 얻고 꾸민 부와 성공으로만 데이지를 사랑하고 데이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품는다. 개츠비는 심지어 데이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설 초반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많고 거대한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다시 만나서 재회를 했을 때 개츠비가 오히려 걱정된 것은 데이지가 그의 화려한 저택, 그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물건들이 얼마나 눈에 잘 띄고 그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지였다. 그는 종종 자신의 소지품을 데이지에게 은근슬쩍 과시하듯 끊임없이 보여주고 데이지가 그에게 감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였다. 소설 중반쯤에 보면, 데이지의 반응에 따라 개츠비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재평가했을 때 데이지가 생각하는 개츠비의 업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인식이 그에겐 가장 중요해 보였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본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 보이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강력한 주장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개츠비가 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지를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데이지는 그의 업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소설 속 개츠비가 그녀를 감싸는 행위는 단순히 그의 풍요로움, 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다. 데이지와 그녀에 대한 개츠비의 정서적 집착과 마음은 본인이 원하고 갖고 있는 물질적 삶에 대한 정신적 집착의 결과이다. 더불어 개츠비의 신념에 따르면 데이지에 대한 사랑은 그의 엄청난 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은 사랑을 돈으로 채우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개츠비가 데이지를 향해 품은 사랑이란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이 소설에서 내가 의문점을 가졌던 주요한 주제를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분석해보자면, 우선 그는 논의의 폭을 보다 확대하여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어떠한 노력들로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그는 이 노력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행복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한다. 그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인간 삶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면모들, 해결될 수 없는 욕망의 문제들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강조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츠비가 얻은 부와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사랑인데, 이것들은 "해결될 수 없는 욕망"이다. 한번 원하고 갖게 되면 더 갖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라는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이다. 이후 제시되는 프로이트의 문명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문명은 인간이 처하게 되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 문명조차 역설적이게도 그 속에 욕망을 억압하고 불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생의 목적과 의도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순전히 쾌락의 원리에 따라 설명한다. "쾌감을 증대시키거나 불쾌감을 줄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프로이트에게 이러한 전제는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는 이와 같은 바탕에 근거해서 전개된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 주는 인생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인간은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뻔하다. 인간은 행복을 얻으려고 애쓴다. 개츠비 본인이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통해서라도 애쓴 것처럼 말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 노력은 적극적인 목표와 소극적인 목표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쾌감을 경험하려고 애쓴다. 여기서 강렬한 쾌감이란, 개츠비가 책 후반부에서 "데이지를 가졌다"라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뒤이어 프로이트는 인간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얼마나 성취되기 어려운지를 지적한다. 그가 "문명 속의 불만" 전체를 통틀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설의 상황이다. 인간은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는 매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선 인간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심리 구조상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개츠비의 상황도 보면, 그가 아무리 데이지를 완벽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중간에 틈이 이 상황을 알게 되어 개츠비의 과거를 폭로하는 등의 갈등을 겪는다. 역시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건, 그만큼 고통과 갈등도 따라오는 게 맞다.

엄격한 의미의 행복은 극도로 억제되어 있던 욕구가 되도록이면 갑자기 충족되는 것에서 오고, 이런 일은 그 성격상 어쩌다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만 가능하다. 쾌락 원칙이 간절히 바라는 상황도 오래 지속되면 강렬한 쾌감이 아니라 가벼운 만족감을 낳을 뿐이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가지려 했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한 그러한 의도도 연관 지을만하다고 생각이 든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가진 후에 그 장면을 살펴보면 이미 그는 원하는 것을 가졌기에 단순히 그건 가벼운 만족함에 미쳤다고 생각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대조에서만 강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상태에서는 거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우리 자신의 그런 심리 구조 때문에 이미 제한되어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쾌락을 얻는 일이 인간의 심리 구조상 제한되어 있는 반면 불행을 경험하기는 훨씬 쉽다. 프로이트는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인간에게 불행이 경험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첫째는 인간 자신의 육체로 인한 불행이며, 둘째는 외부 세계로 인한 불행, 셋째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행이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질 운명이고, 그나마도 고통과 불안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둘째는 외부 세계- 이것은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력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타인들과의 관계인데,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것이다.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과 같은 경우도 통 같은 주변 사람이 그 관계를 원치 않아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깨려고 한 의도도 타인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에서 오는 고통 못지않게

불가피한 고통이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 세 가지 방향 중 "문명"은 세 번째 방향과 매우 깊이 관련을 맺는다. 개츠비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육체와 자연을 통제하여 고통을 줄이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문명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문명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타인들과 갈등하며 도리어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혀 있다. 하나가 열리면 다른 하나가 닫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인 불만 상태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말하였고, 그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행복은 쾌감을 증대시키고 불쾌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도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치명적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복을 위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어떻게 불쾌감을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 시도들이 구분된다. 첫 번째로,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막기 위해 타인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자발적 고립되는 방법이 있다. 개츠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를 축적시키려고 많고 다양한 "부"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맺곤 한다. 또한 "부"를 얻으려고 한 불법 행위 속에서도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안 좋은 대가도 개츠비는 치르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자연을 인간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자신의 유기체에 영향을 주어 감각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의 하위 방법들로서는, 여덟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 화학적인 중독을 통해 불쾌한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본능적인 충동을 완전히 없애고자 수양하는 방법, 본능을 제어하고자 노력하는 방법, 본능적인 충동을 승화시켜 고통을 막는 방법, 상상력, 환상, 공상, 예술에 의존하는 방법, 고통의 원천인 현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방법, 사랑, 성애에 의존하는 방법, 그리고 미적인 대상들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중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능을 제어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이다. 개츠비의 욕망도 결국엔 모두 본능이다. 개츠비가 만약에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억제했다라면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테고, 진심을 다해 데이지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프로이트는 인간 존재가 마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만족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불만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츠비도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데이지를 원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신이 "불만족"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가 제안한 쾌락 원칙은 행복해지기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은 매우 다양하며, 때론 사람에 따라 목표의 적극적인 측면, 혹은 쾌감의 획득을 우선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측면, 즉 불쾌감의 회피를 우선할 수도 있다. 어느 길을 택해도 모든 사람들은 결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 마치 개츠비처럼 말이다.

우리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본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쾌감을 느끼지만,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지적인 열망이 충족되거나 개츠비처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도 쾌감을 느낀다. 일상적으로 '쾌감'이라는 동일한 단어는 각각의 경우에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방법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적합한 대로 여러 방법들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 나열한 방법들 중 딱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인간 심리 구조가 지닌 필연적인 불행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